제19대 대종회 회장 추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안동권씨 대종회 제19대 회장 추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가 4월 18일 오후 2시 대종회 3층 회의실에서 권해옥 대종회 회장을 비롯한 권오덕, 권영하, 권태복, 권혁장 상임위원 등 선거관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권해옥 회장은 인사말에서 제 회장 임기가 5월로 끝나기 때문에 차기 회장 추대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권오덕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권영하 상임위원이 부위원장을 맡고, 권태복, 권혁장, 권광택, 권영상, 권기욱 상임위원이 위원으로, 권오상 사무총장이 간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선관위에서는 선거관리 규정 등을 제정해서 훌륭하고 유능하신 분이 공정하게 추대되어 안동권문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오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권오상 사무총장이 준비한 선거관리 규정안을 꼼꼼히 검토하며 회의 소집과 추천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했다.

제19대 대종회 회장 추대를 위한 추진 일정은 종보에 미리 공지한 대로 후보자 접수는 4월 24일부터 28일까지이며, 상임위원회 회의는 5월 9일, 이사회와 종무위원회 회의는 5월 16일이며, 정기총회는 5월 24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주현씨 대종회 이사 선임

권해옥 회장은 4월 3일 권주현(權主鉉, 복야공파 36世)씨를 대종회 이사로 임명했다. 권주현 이사는 평소 숭조정신이 투철하고 안동권문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대단하며 족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행완 편집국장

권오상 사무총장, 권주현 이사, 권해옥 회장, 권도현 이사(왼쪽부터)

권필원 태사문학 대표 금천문화재단 제4대 이사장 취임

권필원 태사문학 대표가 지난 3월 3일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 금천문화재단 제4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권필원은 필명이고 본명은 '권종호'이다. 권종호 이사장은 1993년 월간 '문예사조'에서 시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시인이다. 시집 '이 시대의 번뇌를 넘어서' 등 다수의 작품으로 활발하게 문단 활동을 해오며 한국문인협회 금천지부 회장, 금천문인협회 회장 역임 등 지역을 대표하는 문인이자 예술가로 금천의 문학을 알리는 데 기여해 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왼쪽), 권종호 이사장(가운데)

권종호 신임 금천문화재단 이사장은 "예술가에겐 창조의 터전이 되고 주민에겐 삶의 윤활유가 되며, 예술이 주는 감동과 독서가 주는 영감의 힘으로 지역을 정답게 들여다보고 주민과 정겹게 마주 보며 아름다운 금천을 만들어나가는 금천문화재단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3월 2일까지 2년이다.

권행완 편집국장

재미교포 권연혁(존 권)씨 부부 대종회 방문

재미교포 권연혁(존 권, 65세)씨 부부가 4월 3일 대종회를 방문했다. 권연혁씨는 남산초등학교를 다니다 12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이후 미국 매릴랜드 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로 현재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다. 아들 권지훈과 변호사인 딸을 두고 있다. 권지훈은 전 미국에서 테니스 1등을 차지한 테니스선수였다. 어릴적에는 테니스 시합차 자주 한국을 방문했다고 한다. 권연혁씨는 족보 등록 방법 등을 물으며 자신이 어느 조상의 후손인지 늘 궁금했는데 대종회를 방문하여 추밀공파 창화공계임을 드디어 알게 되었다고 감격해 했다. 또 때마침 시조 태사공 춘향제가 봉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회에 꼭 참석하고 싶다며 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참제하기도 했다.

권연혁(존 권)씨, 권해옥 회장, 제니퍼씨(권연혁씨 부인), 권오상 사무총장(왼쪽부터)

춘향제에 참제한 소감을 묻자 그는 시조 태사공 춘향제를 처음 봤다. 감개무량하다. 안동권씨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지금까지 2번 시조 태사공께서 꿈에 나타나 꼬~옥 안아주면서 니가 할 일이 많다고 했다는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앞으로 아들과 딸도 한국을 방문하여 직접 체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들과 딸은 그동안 한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글을 읽고 쓸 줄은 안다고 했다. 권연혁씨는 대종회를 다시 한번 방문하여 대종회와 안동권문의 발전을 위해 찬조금으로 미화 1000달러를 기증했다.

권행완 편집국장

제19대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후보자 추천서 접수현황

정관 제13조(총회) 및 제10조(임원의 선임)에 의거 제19대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추대를 위한 후보자 추천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이에 대해 대종회에서는 종보 2월호와 3월호를 통해 이미 공고한 바 있으며 회장 후보자 추천서 접수 기간은 4월 24일(월)에서 28일(금)까지이다. 4월 26일 현재 접수현황과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10조 1항 : 회장 선임은 임원 30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와 종무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추대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정관 제13조 1항, 제12조 2항 :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임원으로 구성하며, 출석인원으로 성립하고 의결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접수현황

순서	성 명	비 고
1	권영창(영주종친회장)	전 영주시장
2	권오돈(추밀공파종회 회장 직무대행)	전 감사원 부이사관

*순서는 접수순

권행완 편집국장

권혁수 민속한우 대표, 납세자의 날 대통령 표창

권혁수 (주)민속한우 대표가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권혁수 대표는 23년간 한우를 사육하며 꾸준한 시설 투자와 위생관리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국가 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역사회의 문화적, 교육적 기반을 마련해 젊은 인재육성 및 채용과 나눔에도 적극 앞장서 왔으며, 지난 21일에는 경북 군위군관내 취약계층 돕기 성금 1800만원과 교육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권혁수 대표는 "작은 나눔이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인재 육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수 대표(오른쪽)

동정

▲**권순준 전 칠보농협전무**가 지난 3월 8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에서 전북 칠보농업협동조합장에 당선됐다. 권순준 조합장은 농협전문대학(현 농협대학교) 농업협동조합과를 졸업하고 칠보농협에서 30년 3개월을 근무한 토박이 농협맨이다. 권순준 조합장은 취임하자마자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역인재 면학분위기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권영걸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7기 신임 위원장에 위촉됐다. 권 위원장은 공간 디자인, 조경,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도시공공디자인 전문가이며, 저술과 공공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디자인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다. 권 신임 위원장은 지난 2019년 3월 동서대 디자인대학 석좌교수로 임용됐으며, 부산·서울을 오가며 디자인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일반대학원 디자인학과에서 석박사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디자인이슈', '색채학' 등의 교과목을 온·오프라인으로 교육하고 있다.

▲**권대수(前)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임 부이사장**에 3월 31일 취임했다. 권 부이사장은 1993년 제 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창업진흥정책관을 거쳐 제9대 대구테크노파크 원장을 역임하는 등 30여년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업무를 해온 실무형 정책 전문가다.

▲**권신일 사장이 코레일관광개발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권신일 대표이사는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겸임교수와 국회 정책연구위원, 에델만코리아 EGA 사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사람 중심, 고객에게 사랑받는 국민기업, 철도여행 전문 공기업 고품격 서비스 혁신, 안전제일 문화 정착, 함께 가는 노사 문화 등을 경영방침으로 제시했다.

▲**권찬 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이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권 사무총장은 그간 기업과 NGO 경험을 두루 쌓아왔다. 광고대행사(코래드)/홍보대행사(한국버슨마스텔러)를 거쳐 삼성에버랜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다양한 국내외 기업 근무 경험을 통해 광고, 홍보, 마케팅 분야 전문성과 함께 IT 산업과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앞장 서 왔다. 어린이재단 해외부문 부회장과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영리와 비영리간 연결 및 가치 공유와 확산에 노력해 왔다.

▲**권달문 ㈜니트피아·㈜한세산업 대표이사**가 서울특별시 니트패션협동조합 이사장에 취임했다. 1962년 설립된 서울특별시 니트패션협동조합은 국내 섬유산업 중 수도권지역에서 니트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체를 조합원사로 구성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로 조합원사의 주요 생산품은 티셔츠, 운동복, 내의, 양말, 장갑, 니트 원단 등을 생산하고 있다. 임기는 3년이다.

▲**권세광 연세본사랑병원 원장이 부천희망재단 제5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신임 권세광 이사장(연세본사랑병원 원장, 근위경골절공술 기술 개발, 정형외과 전문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부회장, 부천시의사회 총무이사, 2019 사랑 나눔 사회공헌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2022 CSR-ESG 경영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부천희망재단 '소원기금' 출연(아동 노인 총 212가구 지원)했다. 부천희망재단은 2011년 설립된 민설 민영 경기도 최초 지역재단으로 희망·자립·긴급·변화 영역에 대하여 지역의 이슈와 자원을 연결, 민간기금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추밀공파대종회 회관조성 모금

추밀공파대종회는 회관을 마련키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하다 코로나로 중단된 이후 다시 모금운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문중 회장 및 임원과 파친 여러분께서 추원보본의 정성으로 적극 동참하시어 파조 향사를 항구적으로 봉행하고 활력있는 대종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옵니다.

1. 목표 : 10억원 [문중 6억5천만원 개인 1억원 보유현금 3억원]
2. 인센티브 : 헌성비 및 동판에 문중과 헌성자 덕을 영구히 칭송 / 헌 성 비 : 문중 및 개인 모두 성명과 헌성금 기록
   회관동판 : 문중 1천만원 이상 개인 300만원 이상

아래 헌성하여 주신 종중회장 및 종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4월26일 현재

昌和公系 玄城君宗中 1000만원, 後北派宗中 1000만원, 双松宗中 500만원, 수원화성 100만원
忠靖公系 判書公계 驛丞公宗中 300만원
平厚公宗會강릉문중 1050만원, 工參公문중 1000만원, 展力副尉公종중 500만원,
횡성종중 200만원, 거처사공종중 500만원
摠制公系길창군종중 500만원, 양정공종중 500만원, 상주문중 300만원,
翼平公系백운공 300만원, 安襄公系대사헌공종중 5000만원, 翊衛公 500만원, 통덕낭공종중 200만원, 漣川公系양근공종중 200만원
齊簡公宗中 15000만원, 敦寧公宗中감찰공계 500만원, 敦寧公宗中양묵제공 200만원 靈靖公宗中 300만원, 寧得公宗中 200만원, 安肅公系石洲公종중 1000만원 **正獻公系** 梧軒宗中 1000만원
後孫個人 權寧鮮고문 1000만원, 權景晳명예회장 1000원, 權彜赫고문, 權泰義고문, 權寧桓고문, 權赫昇명예회장, 權五敦회장, 權五鉉이사 各 300만원, 權寧柱부회장, 權炳善창화공회장, 權永漢복야공파고문(부산), 權奇峻이사, 權光澤이사, 權純澤(도봉) 各 200만원, 權純鳳이사, 權公範이사, 權寧甲이사, 權萬朝이사 權赫燦부회장, 權五廷부회장, 權五周부회장, 權泰平부회장, 權点夏부회장, 權松雄부회장 權得基부회장 100만원, 權寧佑종무위원, 權純福종무위원 각 100만원, 權五鹿부회장, 權炳吉(시흥), 權五翊종원, 權寧浩종무위원 各 50만원, 參議公, **理事** 權學周, 權赫柱, 權純求, 權寧寬, 權泰永, 權赫遠, 權瑠植 各 30만원, 權晩集이사 20만원, 권영갑(관악),권승택(노원), 권중원(중랑), 권희원(시흥), 권순일(고양), 권오곤(진주), 各 10만원

헌성금 입금계좌 : 농협 317-0009-2118-41 안동권씨추밀공대종회
연락처 : 사무처장 권경일 010-3039-7282 추진위원장 권경석 010-5201-5495

추밀공파대종회 회관조성추진위원장 권 경 석

장희빈 중국 조장시 역성구 당서기 대종회 방문

장희빈 중국 조장시 역성구 당서기(한국방문단장)와 방문단은 4월 26일 10시 안동권씨 대종회를 방문하여 중국 조장시와 대종회 권건중 상임부회장 등을 만나 한중 교류에 대해 대담했다.

장희빈 조장시 역성구 당서기는 "2018년 10월 안동권씨 대종회에서 조장시를 방문했는데, 조장시에서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답방을 하지 못했다. 조장시와 역성구는 권현비 묘소를 지방문화재 차원에서 관리하며 중요시하고 있다"며 "안동권씨 대종회와 힘을 합쳐 묘소 관리와 관광자원화에 더욱 힘쓰겠다. 자세한 기획안을 보내드리겠으니 서로 교류하면서 상세한 사항은 논의하기로 하자"고 말했다. 권건중 상임부회장은 "중국 묘는 자연 그대로 두는 편이라 나무가 많고 크다. 한국은 잔디로 깔끔하게 관리한다. 이런 점에서 두 나라의 문화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권오운 전 사무총장은 "두 나라 문화가 서로 다르지만 권현비 묘소를 성역화하는데 서로 협조해서 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영갑 이사는 "지금 안동권씨 대종회 차기 회장을 선출하고 있는데 5월에 회장 추대 절차가 끝나면 확실한 발전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기식 회장은 이날 "조장시가 안동권씨 복야공파 16세손인 권현비(명나라 영락제의 황비)의 묘소를 문화재로 지정해 잘 관리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권현비는 한중교류의 상징적인 존재이다. 안동권씨 대종회의 뜻과 의견을 모아 다양한 방면에서 개발 보존에 협력하겠다. 이번과 같은 문화 교류행사는 한중 우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담에는 대종회에서 권건중 상임부회장, 권오운 전 사무총장, 권영갑 이사, 권정수, 권오철 기자, 권오상 사무총장, 권행완 편집국장 등이 참석했고, 조장시에서는 정일 역성구 류원진 당서기, 우며 역성구 단산가두판사처 당서기, 이효상 역성구 투자서비스센터 부주임, 양석 역성구 상무와 투자 촉진국 국장 등이 참석했다.

조장시는 중국 산동성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 380만 명에 석탄산업이 발전한 도시이다.

권행완 편집국장